

전일동향

전일대비 3.80원 상승한 1,462.70원에 마감

2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3.80원 상승한 1,462.7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.60원 상승한 1,466.5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장 초반 달러 강세를 추종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. 이후 1,468원대에서 양방향 수급을 소화하며 횡보하다가 오후장에서 달러 매도세 집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1,462.70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6.8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78.31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66.50	1469.50	1460.50	1462.70	1466.90
엔화	980.37	986.24	977.13	979.39	-	
유로화	1582.97	1594.48	1580.36	1581.71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0.8	-5.58	-13.34
결제환율(수입)		-0.3	-4.8	-11.55	-23.99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관세 분쟁 우려에...1,46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62.70) 대비 1.25원 상승한 1,461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트럼프 관세 발언을 주목하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 간밤 주요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경계감 및 보복 조치 우려 등에 약세를 시현했다. 유로화는 프랑스가 미국의 부당한 관세 조치에 강하게 보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EU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약세 전환했다. 또한, 상호관세를 기점으로 무역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대두되며 파운드, 엔화는 달러 대비 하락했다. 달러인덱스는 전일대비 0.3% 상승한 104.145에 마감했다.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. 아울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및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고점인식에 따른 네고 유입과 당국 경계감, 위험선호 회복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58.75 ~ 1468.25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8477.67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.2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1985.35, +32.03p(+0.0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6.02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5588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